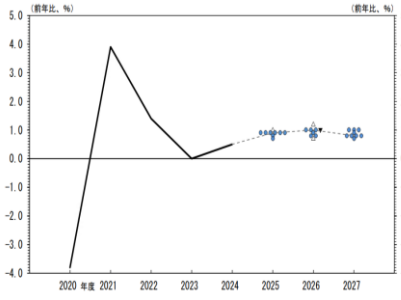
Today Chart Bond

2026. 1. 2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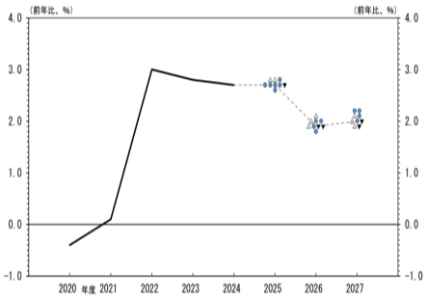
채권 우혜영
whydele@ls-sec.co.kr

2026년 1월 BOJ Review: 금리 동결, 1.0%로 인상 소수의견 출현

실질 GDP 성장률



소비자물가지수(신선식품 제외)



구분	2025년				구분	2026년				구분	2027년			
	경제성장률		물가상승률			경제성장률		물가상승률			경제성장률		물가상승률	
	2025. 10	2026. 1	2025. 10	2026. 1		2025. 10	2026. 1	2025. 10	2026. 1		2025. 10	2026. 1	2025. 10	2026. 1
△	2	1	3	2	△	2	2	3	3	△	-	-	2	3
●	4	8	4	6	●	3	6	4	4	●	9	9	6	4
▼	3	-	2	1	▼	4	1	2	2	▼	-	-	1	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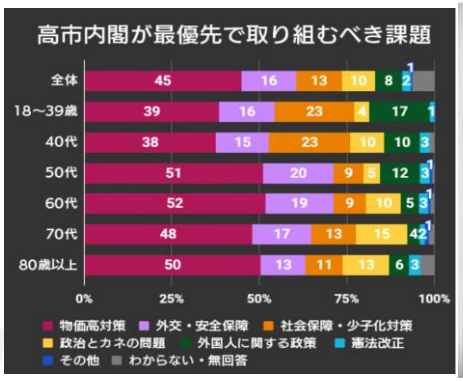
구분	실질 GDP 성장률(%)		
	2025년	2026년	2027년
2025년 10월	+0.6 ~ +0.8 (0.7)	+0.6 ~ +0.8(0.7)	+0.7 ~ +1.1(1.0)
2026년 1월	+0.8 ~ +0.9 (0.9)	+0.8 ~ +1.0(1.0)	+0.8 ~ +1.0(0.8)

구분	물가상승률(%)		
	2025년	2026년	2027년
2025년 10월	+2.7 ~ +2.9(2.7)	+1.6 ~ +2.0(1.8)	+1.8 ~ +2.0(2.0)
2026년 1월	+2.7 ~ +2.8(2.7)	+1.9 ~ +2.0(1.9)	+1.9 ~ +2.2(2.0)

정부 경제 대책 효과 등으로 2025~2026년 성장률 전망 상향. 2027년은 하향
물가 전망은 대체로 불변. 전망 기간 후반에 2% 정도로 추이할 것이라는 전망 유지

주: 중도개혁연합당은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합작 신당
자료: 日本銀行, 언론보도종합, LS증권 리서치센터

내각에 바라는 최우선 과제는 고물가 대응책. 내달 8일 예정된 중의원 선거 앞두고 여·야당 모두 소비세 감세를 내걸었다



Key Point

- **무담보 콜금리(O/N) 0.75% 정도에서 운영 결정(찬성 8명, 반대 1명)**
  - 타카타 하지메 위원 인상 소수의견: 물가 안정 목표 대체로 달성 + 해외 경제 회복 국면에 있는 가운데 국내 물가 상방 리스크가 높으므로 1%로 인상
- **2025·26년 GDP 성장률 상향 조정. 물가상승률은 2026년 전망만 상향**
  - 2025년 성장률은 해외 경제 상승 및 GDP 통계 개정, 2026년은 정부 경제 대책 효과 등에 기인해 상향. 2027년은 경제대책 효과 기저 효과로 하향
  - 2025년 12월 31일부로 휘발유에 추가 부과되던 잠정 세율 폐지, 전기·가스 요금 인하, 무상 교육 정책 등이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키는 요인
- **정치권의 소비세 감세·보조금 확대 등의 공약은 재정 악화 우려를 확대**
  - 식료품 소비세는 현재 8%. 0%로 인하 시 연간 약 5조엔의 세수 감소
  - 최근 재정 우려로 일본 초장기채 금리 중심 상승세 출현. 발표된 경제 전망 고려 시 추가 인상 가능성 확대될 수 있어 장중 단기물 중심 약세 확인됨 (*전일대비 금리 변동: 2년 +3.5bp 3년 2.5bp 10년 2.2bp 30년 -1.9bp)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우혜영).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_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_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_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_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LS증권